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3정보대대/18의무사지원대 등산  
2사단장영어일일교사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미디

### 4,5면 부대 탐방

837수송대대



### 6면 자유 공간

한진이와조던의한국여행기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채연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한국군지원단 주임원사 이취임식



미8군 공보실 상병 윤종필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가운데)이 전임 박성기 주임원사(왼쪽)로부터 한국군지원단 부대기(旗)를 넘겨받아 신임 권기창 주임원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용산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연합사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한국군지원단 주임원사 이취임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내외 귀빈 및 용산 지역의 카투사 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미 8군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기수단과 연합사 의장대가 입장한 후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 이임하는 박성기 주임원사와 취임하는 권기창 주임원사가 함께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김덕곤 대령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30년이라는 긴 군생활을 뒤로하고 12월에 전역하는 박성기 주임원사에 대해 "자율, 책임, 창의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모범적인 간부상을 정립시켰으며 미군에게 한국군으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고 그의 업적을 재확인했고 새로 취임하는 권기창 주임원사에게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인적 자원인 카투사들에 대한 교육, 지도, 관리를 위해 헌신해 온 덕망 있고, 유능한 부사관"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부대발전과 한미 우호 증진을 통한 연합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임하는 박성기 주임원사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역이며 훌륭한 리더십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하리라 확신한다"고 이임하는 날까지 카투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으며 2면으로 계속...

## 8인행사, 보육원생들과 즐거운 행사

8인사행정사령부(이하 8인행사) 부대원들은 지난달 25일, 인근의 보육원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가을, 해심원 원생들을 부대의 소프트볼 필드로 초청, 함께 운동과 놀이를 즐기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해심원 원장 임혜옥씨는 개회사에서 "지난 91년 해심원 고아원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건물 보수공사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때, 30여명의 8인행사 부대원들이 고아원을 찾아와 손수 벽돌을 쌓으며 건물을 완공시켜준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해심원생들은 여러분이 보여준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8인행사 부대 2면으로 계속...



카투사 신문 장승모

8인행사 본부중대의 박창선 병장(왼쪽)과 Joe Buck 소위가 한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있다.

주임원사 이취임식

1면에 이어서...

며 "이 땅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자"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카투사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이임사를 마쳤다.

새로 취임한 권기창 주임원사는 육군 1사단 12연대 군수 선임 하사관, 1사단 본부중대 경비 선임 하사관을 거쳐 1사단 8토우중대 부소대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 미 19전지사 20지원단과 미 728헌병대대 552중대 행정관을 지냈고, 대구지역대 주임원사를 역임하고 미8군 KTA/PLDC 행정관으로 임무를 수행 중 10월 24일부로 한국군 지원단 주임원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권기창 주임원사는 "카투사들을 잘 교육시키고 보살피는 것이 현재 및 미래 한미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직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일병 김택현

8인행사 부대초청

1면에 이어서...

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날 부대를 찾은 30여명의 핵심원 원생들은 8인행사 부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운동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8인행사 선임병장 전유범 병장은 "매년 있는 오늘 행사 이외에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가지며 아이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해 8인행사 부대원들과 핵심원 원생들과의 특별한 정을 보여주었다.

페이스 페인팅, 귀신의 집 등 행사장에서 준비된 모든 놀이가 끝나자 핵심원생들은 각자 8인행사 부대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받았고, 부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행사를 마쳤다.

이 날 행사를 총괄한 8인행사 부여단장 Sheila Hickman 대령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느낌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이러한 행사는 8인행사 부대원들에게도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핵심원 아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상병 장승모



제공사진

한옥마을 앞에서 포즈를 취한 3정보대대/18의무사 부대원들

등산으로 싹트는 전우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3 정보대대/18 의무사 지원대는 10월 15일 반복되는 부대생활로 인해 지친 부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전우애 고취를 위해 충남 아산시에 있는 699m 고지의 광덕산을 등반하였다.

3 정보대대에 새로 전입한 본부중대 김민주 이병은 "등산을 통해 부대원들과 좀더 친해 질 수 있었고, 선임병들로부터 군생활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어 기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많은 부대원들이 가을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산을 내려와서 산기슭에 있는 외암한옥마을에 들러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전통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3정보대대/18의무사 지원대 상사 유재선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색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며 전화 번호는 723-6460/8376/4681임. 모든 글은 용산군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angbys@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상병 강병삼
- 기자
- 상병 장승모
- 일병 김택현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CPT Mary J. Constantino
- Editor
- CPL Kang, Byung Sam
- Staff Writers
- CPL Jang, Seung Mo
- PFC Kim, Taek Hyun
- Special Assistant
- Mr. In, Pu 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Command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angbys@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사랑이 넘치는 '우정의 교실'

벽안의 미군 장성 부부가 한국 꿈나무들의 일일교사로 나서 어눌한 한국말을 섞어가며 열강했고 뜻밖의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어린 학생들은 한 마디라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모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빛을 더했다.

이날 영어 일일교사는 주한 미2사단장 John Wood 소장과 그의 부인 Margret Wood 여사.



2사단 공보실 류후선

2사단장 John Wood 소장의 강연모습

Wood 소장은 "2사단 장병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지산중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직접 참여해 한미간의 유대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고 싶어 일일 영어교사로 나서게 됐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업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대화식으로 진행됐다.

Wood 소장과 Margret 여사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화답하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수업은 마치 오래 전부터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던 것 처럼 시종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연스

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의 대대적인 박수 속에 수업을 마친 이들 부부는 "오히려 우리가 즐기면서 수업을 했다"며 "이번 수업을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2사단은 약 30명으로 구성된 영어지원팀을 구성,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산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를 매주 토요일 번갈아 가며 2-3명씩 찾아 영어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번 사단장의 일일교사 참여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국방일보 제공

한미연합사 한국군 근무여건 개선

한미연합사로 전입 오는 한국군 장병(배우자 포함)들에 대한 출입증 발급이 신청 즉시 이뤄져 그동안 출입증 발급 지연으로 겪었던 각종 불편이 해소된다. 아울러 한국군의 출입증도 용산기지는 물론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언제든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군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던 연합사 내 체육, 복지시설도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사 근무 '한국군 장병 근무개선책'을 마련,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영내 실내체육관과 축구장, 야구장 등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볼링장, 피크닉장소,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도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나 카투사만 출입할 수 있었던 영내극장도 한국군 장병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미군 전용 골프장(성남 소재)도 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군 대령급까지 미군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이다.

국방일보 제공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angbys@usfk.korea.army.mil

■ 군상식

F-5

저가의 단좌형 경 전투기로 방공임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경폭격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정찰기도 개발되었다.

주익은 저익형이며 기동성 향상을 위해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연 플랩과 후



제공사진

나란히 비행하고있는 2대의 F-5

연플랩이 받음각(AOA)과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AUTO FLAP형식이다.

◆ 운용

- 주로 공대공 요격 임무의 경전투기
- 공대지(CAS, BAI) 임무 수행가능
- 정찰 카메라를 탑재하여 정찰 임무

◆ 향후운용계획

기체 수명연장 계획에 의거 2000년대 초까지 운용될 전망이다.

◆ 무장

- Durandal
- CBU-24/49/52/58
- MK-84
- MK-82
- LAU-3 로켓
- SU-20/25 로켓 발사대
- ◆ 전자장비
- APQ-159 펄스레이더
- ASG-31
- APX-101 피아식별장비
- LN-33 관성 항법장비 (선택사양)
- ALE-40 ECM
- ARN-46 RWR
- ◆ 제원
- 제작사 : 美 Northrop
- 社
- 전장 : 14.45 m
- 전폭 : 8.13 m
- 전고 : 4.07 m
- 날개길이 : 8.13 m
- 중량 : 4,410 kg
- 최대이륙중량 : 11,214 kg
- 최대무장중량 : 3,175 kg
- 작전반경 : 1,056 km
- 항속거리 : 2,863 km
- 실용상승고도 : 15,793 m
- 이륙거리 : 701 m
- 착륙거리 : 792 m
- 속도 : 마하 1.64
- 엔진 : General Electric J85-GE-21B 터보제트 엔진
- 추진력 : 각 2,268 kg

F-4E

【개발배경】

1953년 맥도널 더글러스(M.D)사는 단좌형 장거리 공격용 전투기에 대한 자체 예비 설계를 하였으나, 미 해군 요구에 따라 요격 미사일 스페로우의 장착 및 쌍발 엔진의 진천후 장거리 복좌 방공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F-4E 팬텀 II 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6년 F-4E Block 64 19대 (76-0493/0511)를 발주하여 1977년 인도되었고, 1978년 F-4E Block 67 18대 (78-0727/0744)가 인도되어 제17전투비행단 제152, 153전투비행대에 배치되었다.

이 중 78-0744 기체는 5057 번째 Phantom II로서 역사상 마지막으로 생산된 F-4이다.

이 후 미 공군 저장분으로 1982년에 F-4D 6대와 1985년에 F-4E 4대가 인도되었으며, 1987년 12월부터 1988년 4월 사이에 24대의 F-4D형 (총액 7,700만 달러), 1988년에 F-4E 24대 및 1989년에 오산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51st TFW) 이 F-16C/D로 기종전환 되면서 F-4E 1개 대대분 19대를 포함한 30대 (2억 4,600만 달러)의 F-4E가 추가 인도되었다.

【설계특성】

넓은 동체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여 연료적재량을 7,022리터로 늘일 수 있었으며 동체하부에 무장장착대를 4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 주날개는 저익구조의 삼각형이며 좌우 중앙외측이 상반각을 유지



제공사진

F-4E가 창공을 날고 있다.

하며 접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수평 꼬리날개는 23도의 하반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개발현황】

1954년 : 맥도널 더글러스社, 미해군 요구에 의해 시제기 2대 제작 발주

1958년 : 고성능 레이더 및 3시간 이상의 항속능력을 "F-4A" 첫비행

1960년 : 실전용 "F-4B" 생산, 미해군/해병에 인도 및 실전배치

1963년 : 미공군의 레이더 개선 요구에 의한 "F-4C" 첫비행

1965년 : 항법장비 및 화력통제 레이더등을 개선한 미공군용 "F-4D" 생산

1966년 : 對地공격능력을 보완한 미해군용 "F-4J" 생산

1967년 : 기관포 내장 및 空對地능력을 향상한 "F-4E" 생산

1987년 까지 총발주대수 : 총 5,200 여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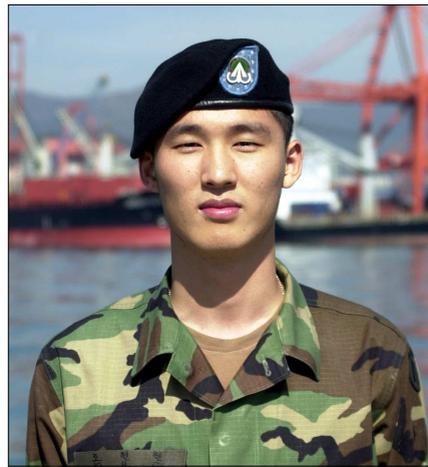
자료출처 :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부산이라서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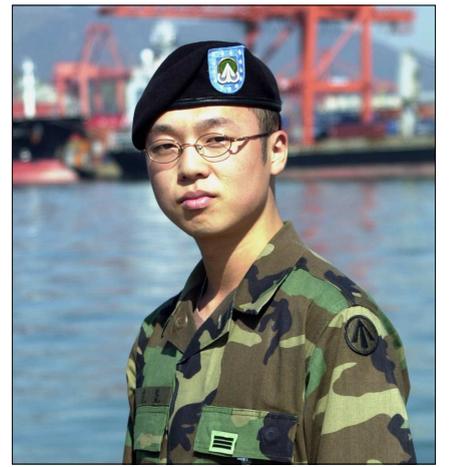
837수송대대 운용부 일병 손일웅



837수송대대 운용부 상병 조현철



837수송대대 수송행정부 상병 신현구



837수송대대 수송행정부 상병 조규현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부산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정말 가슴 뛰고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 따뜻한 날씨는, 내륙에서만 지냈던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캠프의 위치는 부산 시내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편의 시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가 넓게 펼쳐진 경치를 보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경치가 좋을뿐더러 사람들이 인심이 후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10분만 이동하면 부산의 중심가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비록 최신식은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 답답할 때 넓은 바다를 쳐다보며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은 제 군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행복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벗어난 부두로 가야합니다. 따라서, 항구도시 부산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행사를 관람하러 부산을 찾기 때문에 이들과 접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부산의 여러 곳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만이 가지는 장점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까지 한번도 부산에서 군생활을 하리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기엔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은 있었습니다. 약 10개월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부산만의 문화를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많은 행사들을 경험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대도시이다 보니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부산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 837 수송대대

## Transportation Battalion

많은 카투사들에게 조금 생소할지도 모를 캠프 하야리아의 부대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기차는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첫 출장이라는 설레임으로 5시간여의 기차길은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머릿속은 출장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부산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을 타고 온 째깍한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겨왔다. 캠프 하야리아에 도착, 짐과 여독을 단숨에 푼 기차는 그날 저녁 부산국제영화제를 취재한 후, 다음날 있을 837수송대대 부대탐방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출장 이튿날 찾아간 837수송대대는 다소 복잡한 연혁을 지니고 있었다. 1950년 북한이 38선 경계를 넘어 남한을 침공하자 미국과 UN에서는 신속히 일본에 있던 809항만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7주요항만사령부라는 이름 아래 부산을 비롯한 7개의 항구를 통해 군대와 장비들을 한반도로 보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사 관련 항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자 1955년 미군은 인천에 항만사령본부를 두고 부산항만에 위치했던 사령부는 2수송사령부 부산 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2수송사령부는 1958년에는 미육군 부산항만, 1960년에는 70수송대대로 개칭되었다. 1960년

중반이 되자 부산이 주요 보급 지역으로 부상하였고, 베트남으로 가는 한국군 승선 항구로써 무역량이 급속히 늘었다. 1967년 70수송대대는 다시 미육군 부산항만 작전부(U.S. Army Port Operations-Busan)로 개칭된다. 7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성장과 함께 부산의 상업 항구는 크게 발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천의 202수송대대의 비활성화로 부산사령부는 한국의 하나의 궁극적인 해양기지가 된다. 1981년 10월, 미8군은 미육군 부산항만 작전본부를 군사교통관리사령부(Military Traffic Management Command)로 전환하고, 이는 1993년 1317항만사령부, 97년 837수송대대로 재편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837수송대대 예하에는 수송행정부, 운용부, 중대본부, 행정부 이렇게 총 네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곳의 카투사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다. 837수송대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행정부의 주요 업무는 미 본토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 8군의 하역화물 및 선적화물을 전산 처리하여 25수송대대와 연계,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산으로 들어온 화물 내역과 실제 내역을 비교하여 화물이 손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일도 맡고 있

다. 이외에도 훈련 시나 화물을 하역할 때 이용되는 이동식 사무실(DPOC: Deployable Operations Center)을 항상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운용부는 부대의 훈련 스케줄과 훈련에 관한 문서작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부대원들을 클래스에 보내는 절차를 관장하는 등 일반 부대의 작전과 역할을 한다. 중대본부는 대대장 직속 부서로서 병력 이동 등의 변경이 있으면 대대장 및 주임원사에게 보고하고, 부대 내의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다. 또한 중대본부 내의 NBC통은 화생방 장비 관리 및 화생방 훈련을 책임진다. 그리고 대대의 행정부는 중대공급과와 행정과로 나뉘는데, 중대공급과는 부대에서 각 부서 및 각종 작전 수행 시에 필요한 물품 공급, 행정과는 부대 인원의 인사 상황 관리를 맡고 있다. 837수송대대 행정과는 이 외에도 사무실이 부두에 있어 대대의 카투사들이 점심시간에 DFAC을 이용할 수 없는 까닭에, 식사를 신청하여 음식을 부대 식당에서 부두로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837수송대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대원들이 부대 안이 아닌 바다에 인접한 부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837수송대대 선임병장 이종근 병장에 의하면 이들의 업무가 항만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직접 현지에서 인수, 관리하는 것이니만큼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캠프

하야리아가 아닌, 항만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이들은 숙소 및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캠프 하야리아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이 걸리는 부두

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부대와는 달리, 진급을 하여 전투복에 약장을 단다거나 혹은 인사과에 가는 일이 여가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종근 병장은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시간에 부대 식당을 갈 수 없어 음식을 항상 부대에서 부두로 운반하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없고 메뉴도 요일별로 반복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837부대원들은 부두에서 근무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중대본부의 조현철 상병은 "근무를 하다가 피로해지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사무실 밖으로 나온다. 넓게 탁 트인 바다와 생동감 넘치는 항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것은 837수송대대 부대원

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며 부두에서 일하는 소감을 말했다. 행정부의 장형준 일병 역시 "온종일 사무실에만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 틈을 이용, 바다를 보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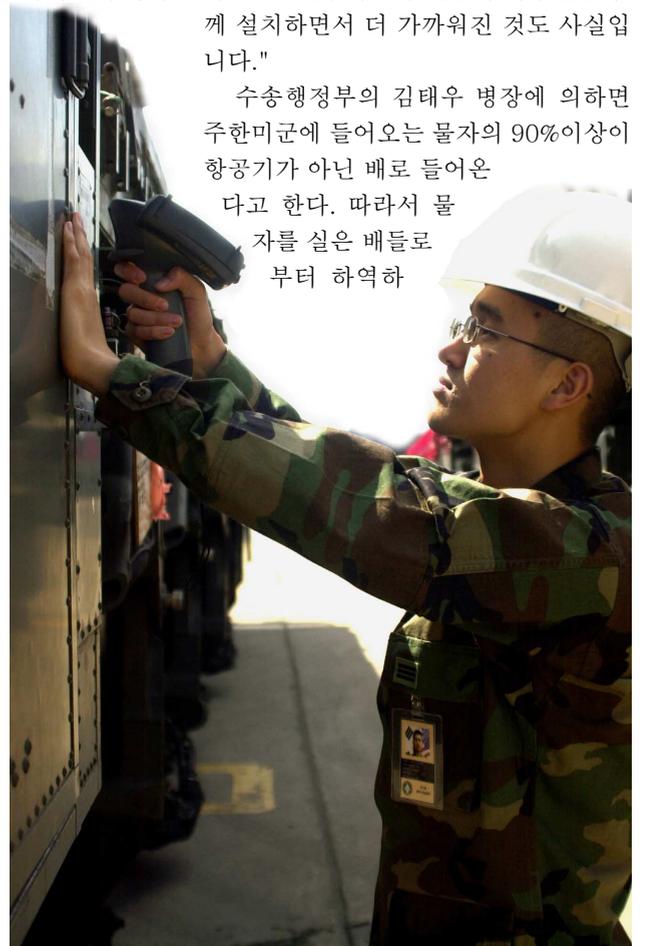
그리고 837수송대대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부대의 사병이 모두 카투사들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대대는 미군 간부와 군무원, 그리고 카투사 사병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이들 카투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837수송대대는 부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카투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중대본부 Clayton Reeves 하사는 부대 내에서의 카투사의 기여도에 대해 "카투사가 부대 전투력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대의 주축"이라며 "이들의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해 부대 내에서 카투사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

물자를 실은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부두 내에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한다. 일단 하역작업이 시작되면 이동식 사무실 안에서 하역된 물자들에 대한 서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수송행정부의 신현구 상병에 의하면 수송행정부 소속의 카투사들은 이 이동식 사무실과 관련하여 군생활 동안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한 장정 몇이 같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무실을 다른 부두로 신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트레일러에 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굵은 쇠사슬을 이용하여 묶고 쇠파이프로 축을 고정시키는 등 힘은 물론이고 일하는 사람들 간에 협동심도 필요합니다. 동료 카투사들과 이동식 사무실을 함께 설치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송행정부의 김태우 병장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물자의 90% 이상이 항공기가 아닌 배로 들어온

다고 한다. 따라서 물자를 실은 배들로부터 하역하



카투사 신문 장승모



제공사진

는 컨테이너의 양이 일주일에 수백 개에 다다른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물자가 이곳 부두를 통해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저는 이들 화물들이 하역되면 현장에 나가 스캐너를 이용, 이들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물자가 제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임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837수송대대 부대원들은 매년 연합전시증원 훈련과 울지포커스렌즈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 시 837수송대대는 599수송단 직속 부서로 편입되어 한국군항만 운영단과 연합, 연합항만협조본부를 구성하여 부산항만을 방어, 관리한다고 한다. 훈련 시 837수송대대 카투사들의 주요 임무는 세계지휘통신체계(GCCS-K: Global Command & Control Systems-Kore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카투사들은 전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지휘통신체계 프

로그램 클래스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837수송대대를 포함한 제4지역대의 부대들은 미군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강의는 보통 캠프 하야리아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부대의 전 카투사가 참석해 밀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부대 밖에서의 영어강의와는 달리 부대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투사들의 호응도 좋다고 한다.

837수송대대 부대원들의 대외활동 역시 매우 활발하다. 부대원들은 매 분기별로 부산 UN공원에 있는 UN묘지를 찾아 별초를 하고 묘지 주위를 청소한다. 또한 연말에는 '선린' 애육원 아이들을 부대로 초청, 식사를 함께 하고 선물도 증정하는 등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한다고 한다.

837수송대대 대부분의 카투사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대원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운용부의 박진만 상병은 "집이 멀어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부산이 워낙 대도시이다 보니 주말을 이



제공사진

용, 볼거리를 찾아다닌다. 마음이 맞는 부대원끼리 관심있는 행사를 찾아 관람하는 일도 많다"며 "함께 시간을 많이 하다보니 관계도 더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역 준비에 한창인 837수송대대 전선임병장 임낙원 병장(11월 제대)은 떠나가기 전에 후배 카투사들에게 조언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카투사는 다른 한국군들에 비해 자유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생활을 돌아보면 이러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후배 카투사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자기계발에 많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작은 아쉬움을 갖고 제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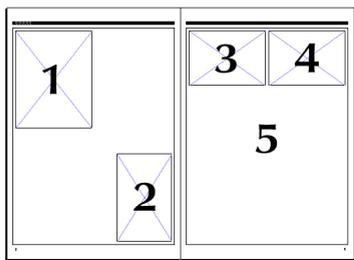
837수송대대를 이끄는 Jeffrey Skinner 주임원사 역시 837수송대대 카투사들에 대한 칭찬과 함께 직업군인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에 많은 미군부대가 있지만 카투사 프로그램이 가장 효력을 발하는 곳은 아마 이곳 837수송대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이 한국에서의 세 번째 근무인데, 이제

까지 제가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들은 유능해서 모든 것을 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덕목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부대가 더 좋아진다면 자기 자신도 뿌듯해질 것이고, 부대의 발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837수송대대를 취재하면서 이들이 일하는 부두의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무실에서 열 발짝만 나가면 닿는 바다와 살랑이는 파도. 그리고 이를 가로지르는 많은 배들. 기자는 이러한 광경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싶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837수송대대 카투사들의 여유롭고 호탕한 성격이 이러한 부대 환경에 연유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다소 비논리적인(?) 생각도 해보았다. 이들 카투사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길지 않은 청춘, 그리고 그 안의 2년. 이 소중한 시간동안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이 많은 배움을 얻고 제대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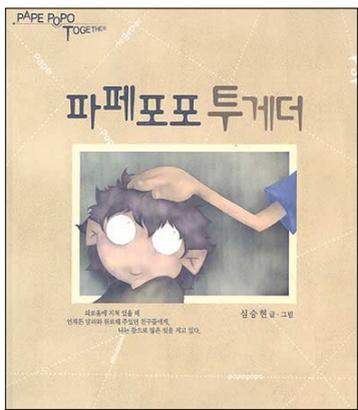
상병 장승모



1. 발전기와 이동식 사무실 사이 전력선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중대본부 조현철 상병
2. 스캐너를 이용하여 TCN (Transportation Control Number)을 입력하는 행정부 신현구 상병
3. 837수송대대 카투사 부대원들
4. UN공원을 방문하여 UN묘지 별초작업을 하는 837수송대대 카투사 부대원들
5. 837수송대대 부대원들이 근무하는 부두에서 바라본 부산 광경



카투사 신문 장승모



파페포포 투게더

심승현 / 흥익출판사

200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파페포포 메모리즈>에 이은 파페포포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이미 1권의 인기로 입증된 작가의 역량이 '더불어 함께 희망을 찾아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꿈과 삶'을 주제로, 한층 다양한 에피소드와 원숙해진 그림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국내 출판계에 '카툰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에 1권이 수출되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WEBSITE

축제로

www.festivalo.co.kr

가을을 맞아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축제로 가는 나들목이 될 '축제로'. 지역축제정보부터 예술축제, 이색축제, 발굴 축제들과 인기 있는 축제 정보들이 모두 모여 있다. 문화제, 영화제 등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축제 포스터, 학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축제는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들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같이 갈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게시판도 있다.

■ 카투사 기고문

# 한진이와 조던의 한국여행기

이번 호부터 본지는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이한진 상병의 한국여행기를 연재합니다. 카투사가 미군 동료와 함께 국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행은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순간이고, 또 설레임을 만끽하며 낯선 곳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이 혼자가 아닌 둘이라면 더욱 더 즐겁고 유쾌하다. 조던과 나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작은 의미로 부터 시작되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감을 느꼈다. 때로는 비슷하게, 또 때로는 다르게 느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그것은 우리들의 눈을 더욱 넓혀 주었다.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진 조던과 나는 2002년 10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많은 곳을 둘러보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2003년 9월 우리들은 둘도 없는 친구사이가 되어있었다.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아울러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행들은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꾸러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한다.

**1. 전쟁과 평화의 긴장상태:** 우리 여행의 시작은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한다. 지금 전세계는 전쟁과 평화의 긴장상태 속에 놓여있다.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상을 우리는 조마조마 여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는 휴전선을 맞두고 팽팽한 갈등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혼돈의 세기를 전쟁기념관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윤곽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예술적 상상력의 코드들:** 한국여행을 하는데 있어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세계부터 살펴보는 일은 가장 손쉬우리라 본다. 우리선조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본다면 그 화려함과 고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는 종교에 관계없이 석굴암의 부처님상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그 많은 유적들과 수원을 더욱 빛내주고 있는 화성,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위엄을 자랑하는 창덕궁과 종묘 등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리라.

**3.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한편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사동과 경복궁에는 한국인의 살아온 흔적들이 잘 간직되어 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문화의 향기는 바람부는 풍경 소리에서도, 위로 오르는 계단의 태극무늬에서도, 또 김치를 담그는 손끝의 정성에서도 느낄 수 있다.

**4. 전설과 신화 속으로...:** 신화가 없는 이 세상은 매우 따분할 것이다. 의미 부여와 그것을 간직한 공간은 우리들

에게 무한한 상상과 가슴벅찬 설레임을 안겨준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거처간 자리가 전설로 승화되고, 그곳은 신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부여의 낙화암이나 경주의 안압지 같은 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귀기울여 들어보았다.

**5. 축제, 그 향유의 언어:** 그 다음의 펼쳐지는 이야기는 '축제'이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시민이 주도가 되는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한 걸음을 크게 내딛었다. 문명사회는 축제라는 양식을 통해 그 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갈등해결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듯 한국이라는 사회도 각곳의 축제문화를 활성화시켜 시민사회의 성숙을 이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을 향유의 주체인 우리들이 직접 참여해본다.



**6. 현대 한국사회 읽어내기:**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도심 속의 길게 선 빌딩들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다. 초고속 성장,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한국사회가 지금 2003년까지 흘러오며 보여준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권력과 부의 중심인 여의도와 강남일대에서부터 급변하는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명동과 남대문 주변, 외국문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태원 등 모자이크 같은 현대한국을 살펴본다.

**7. 희생과 순국의 고귀한 이름이여!:**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찾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엄숙해진다. 그 하나의 공간에는 억겁의 시간동안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고귀한 이름들이 묻혀있기 때문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조국을 위한 이들의 자취가 서려있지 않은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그렇지만 이 여정에서는 대표적으로 독립기념관과 강화도에 위치한 초지진, 그리고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해 조금이나마 그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8. 문명은 자연의 동반자?:** 지금 한강에 떠 있는 선유도에 가보라. 그곳은 작지만 인간과 환경, 나아가서는 문명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철학이 담겨져있다.

생태공원들이 던져주는 공존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 즉, 지구 환경의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그것을 감소시켜 개선하는 측면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첨예한 갈등 속에 또 다른 길은 없는지 대전 엑스포와 난지공원을 통해 알아본다.

**9. 종교의 다양한 색채들:** 이렇게 다양한 논의와 이야기들 가운데 종교에 관한 이슈가 가장 예민하다고 생각한다. 종교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그것을 살아가는 태도이기에 정말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놓여져 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은 아마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촌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다르다.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중주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진 교향곡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본다. 천주교의 성전인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불교의 주요사찰인 봉은사 그리고 한국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다듬었다.

**10. 번영과 화합의 미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번영과 화합이다. 세계의 공통언어인 음악과 스포츠, 그리고 어린이라는 순수한 존재들은 인류의 마지막 대안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선택은 아주 신중하고도 정확해야 한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인류의 번영을 향해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희망'이라는 불빛을 더욱 환히 밝혀주고 있다. 마치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하나의 캔버스위에 가지런히 수놓아져 있듯이 말이다.

우리들의 여행은 이렇게 갈등의 세계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화와 예술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우르며 또한 환경문제와 종교적 이슈까지도 고찰해가는 기나긴 여정이다. 좌우로 길게 늘인 좌표위에 시간축과 공간축으로 구성된 역사는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실체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는 쉬워도 손으로 잡기는 힘들다. 그런데 역사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잡고 싶어한다. 여행이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조금이나마 만족시켜준다면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이 행복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상병 이한진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24 장**

\* 이 자리는 장애인석입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어디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애인용 좌석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에 관한 대화 내용을 연습합니다.

Topic : "이 자리는 장애인석입니다."  
"This seat is for the disabled."

주제연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영어로는 the disabled 라고 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the +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the poor는 '가난한 사람들', the rich는 '부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the disabled는 '몸이 disabled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즉, 장애인분들'을 의미합니다.

대화를 통해 더 보실까요?

A: We'd better take seats at the back of the bus.

B: But there are empty seats in front.

A: But those are reserved for the disabled.

B: I see, let's go sit at the back.  
번역)

A: 우리 버스 뒤에 가서 앉자.

B: 하지만 앞에도 빈 좌석이 있잖아?

A: 너도 알다시피 그 좌석들은 장애인을 위한 거잖아.

B: 아 그렇구나, 뒤에 가서 앉자.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 연습입니다.

Topic :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I have a flat tire."

주제연구)

'타이어가 펑크 나다.(바람이 빠지다)'라고 할 때는 flat tire 라는 표현을 씁니다. Flat이란 '평평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 납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A: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B: Because I had a flat tire.

A: Again? I think it's time to buy a new set of tires.

B: You can say that again.

번역)

A: 오늘 아침에 왜 지각했어요?

B: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A: 또 펑크 났어요?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때가 됐나 봐요.

B: 그런것 같아요.

\*자동차 미등이 작동하지 않아요

자동차 뒤에 보면 brake를 밟을 때 불이 들어오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 등등 영어로는 tail lights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앞을 head라고 하고 뒷부분을 tail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지요?

Topic : "자동차 미등이 작동하지 않아요."

"The tail lights are not functioning."

주제연구)

자동차의 뒤 tail lights가 작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운전시 tail lights가 작동 않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대화를 통해 더 보시면,

A: Have you checked your tail lights?

B: Why, is anything wrong?

A: Yes, when I followed your car last night, I noticed your tail lights were not functioning properly.

B: I didn't know that. I will check them right away.

번역)

A: 차 미등 검사했어?

B: 왜? 무슨 이상있어?

A: 응, 내가 어젯밤에 네 차를 따라가다보니까, 네 차 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

B: 몰랐는걸, 즉시 체크해 봐야겠네.

\*차 키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겼어요.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차 키를 꽂아놓은 채로 문이 잠겨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당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연습입니다.

Topic : "차 키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겼어요."

"I am locked out of my car."

대화를 통해 조금 더 보실까요?

A: My goodness, I am locked out

of my car.

B: Don't you have an emergency key?

A: My wife has one but she went to see a doctor.

B: Ask John, he knows how to open a car door without a key.  
번역)

A: 이런 세상에, 키를 안뵙고 문을 잠겼네.

B: 비상키 하나 없어?

A: 집사람한테 있는데 병원가고 지금 집에 없거든.

B: John에게 요청해봐, 그 친구 키 없이도 차문을 열 줄 안다니까.

(번역)

보통 자동차를 사면 키를 두 개 줍니다. 하나는 일반 key이고 또 하나는 '비상상황'에 쓰라는 비상키입니다. 이런 경우 '비상키'를 emergency key라고 하지요.

\*"내 생각에 당신의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종 자동차의 계기판에 고장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나를 알려주는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을 않는다면 정말 큰일나겠죠?

Topic : "내 생각에 당신차의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I think your speedometer is not working properly.

대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면,

A: I think your speedometer is not working properly.

B: You're right. I have to take her to a mechanic.

A: I know one who is good and hon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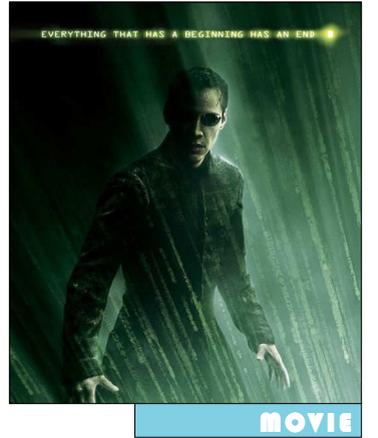
B: Let's go together when you are free.  
번역)

A: 내 생각에 당신 차의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B: 당신 말이 맞아요. 정비사한테 가 봐야겠어요.

A: 내가 기술 좋고 정직한 사람을 아는데요.

B: 시간 있으시면 그 사람한테 같이 가 봅시다.



**매트릭스3 레볼루션**

감독: 래리 & 앤디 워쇼스키

주연: 키아누 리브스

진실을 찾는 여정에 한걸음 더 접근하게 된 네오. 그러나 그 와중에 능력을 소진하게 된다. 한편, 스미스는 매순간 세력이 커져가면서 기계들의 통제권까지 벗어나게 된다. 니오베의 도움으로 네오와 트리니티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기계 도시의 심장부로 잠입한다. 그곳에서 기계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만나 파멸 직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데...



**TOP CHARTS**

**Browneyed soul  
정말 사랑했을까**

- 2.I Swear/S
- 3.당그러니 / 이수영
- 4.With me/휘성
- 5.관계/WAX
- 6.오리 날다/체리필터
- 7.체념/빅마마
- 8.습관/Fly to the Sky
- 9.자꾸만 /이기찬
- 10.만취 in melody/은지원
- 11.10 minutes/이효리
- 12.잇을께 /윤도현밴드
- 13.내일해 /이정

# 더 이상의 카리스마는 없다! 채연

가요계에 돌풍을 몰고 온 그녀, 채연씨와 모 방송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부대 내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 시간에 늦은 기자는 커피숍 앞에 다다르자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고, 흑여채연씨가 화를 내지 않을런지 걱정하며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아니나 다를까, 채연씨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의 기우였는지, 채연씨는 조금도 화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운 얼굴로 기자를 맞아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채연씨의 세심하고 또 툭툭한 성격 덕택에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먼저 가수 활동을 했다는 독특한 경력은 그녀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그녀의 넘치는 자신감을 느끼며, '가요계에 새로운 별이 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생년월일은 1978년 12월 10일이고, 학교는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휴학중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한국에서 앨범을 준비하다가, 일본의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오디션을 열어 참가하게 되었어요. 한국 여성 가수를 뽑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운이 좋게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급작스럽게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앨범 준비하면서 일본에서의 가수 활동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도 한국의 소속사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원래는 일본에서 일 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곳에서의 반응이 워낙 좋고, 저 또한 아쉽기도 해서 활동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삼 년 동안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돌아왔지요. 나이도 있잖아요! (웃음)

-최근근황

요즘 대학교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축제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버라이어티 쇼나 가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속곡에 대해서 물어오시는데요, 아직 후속곡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데뷔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가 활동한지 일 년은 넘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의 분들이 워낙 많이 물어오셔서 저도 후속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타이틀곡 '위험한 연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거예요.

-타이틀곡 '위험한 연출'에 대해

'위험한 연출'은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멜로디로 되어 있어서 듣기 편하고요, 가사도 드라마틱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인상깊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위험한 연출'은 트랜스라는 장르인데요, 테크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처음에는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수가 이슈거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해서 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도대체 저 가수는 어떻게 하고 춤을 추기에 저런 의혹을 받을까?', 여러 가지 소문이 많던데 어떤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기에 그럴까? 이런 의혹이 커지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저를 직접 보시려고 여러 대학교에서 축제 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성격

저는 때로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때로는 반대로 굉장히 외향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조금 급변하는 면이 있거든요. 늘 밝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울해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주위의 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도 없고, 차갑고, 도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브라운관에서 비치는 제 이미지가 그런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

멋진 제복을 입은 각 잡힌 군인은 정말 멋져요.

-존경하는 선배 가수

엄정화씨를 닮고 싶어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귀여우시잖아요. 팬들에게 항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습도 존경스럽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무대매너도 좋으시고요.

-이상형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으로 되는 편이에요. 예전에 토속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다면, 바로 그런 스타일이 제 이상형이 되겠지요. 또 다른 분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고요. 정해진 이상형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웃을 때 눈이 예쁜 사람?

-가수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실수담

무대에 있으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노래가사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래부르기 직전에 가사가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그때는 어찌나 떨렸던지..(웃음)

-카투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영어! 카투사가 되려면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투사 하면 영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가 카투사분들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요, 분명 카투사분들도 다른 군대처럼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항상 짜여진 계획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고 군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상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은 제가 제 첫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툭툭하다고 하세요.

저는 딱히 꾸미고 싶지 않고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 좋아하는 계절이 추운 겨울이라고..

얼마 전까지 해도 제가 추운 겨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겨울에도 오리털 점퍼에 안에는 반팔티만 입고 다녔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날씨가 왜이리 추운지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있었던 일본 도쿄는 아무리 추워도 영하 3도를 내려가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 벌써부터 많이 추워지네요. 그래도 역시 계절하면 겨울인 것 같아요. 눈도 너무 좋고, 옷을 많이 껴입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군인은 군복을 갖춰 입었을 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원래 남자나 여자나 제복에 약하잖아요! 군대 모자에

### 프로필

생년월일: 1978년 12월 10일

키: 165cm / 몸무게: 47kg

가족사항: 1남 1녀 중 둘째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휴학 중